

“흐름”으로 읽는 『율리시스』의 “세 개의 장”

강 미 선

I. 들어가며

본 논문은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와 질 들뢰즈(Gilles Deleuze)의 예술론의 접점인 “흐름”(flux)에 착안하여 『율리시스』(*Ulysses*)의 15장¹⁾을 중심으로 16장과 17장에서 블룸(Leopold Bloom)이 자신의 문제인 ‘아내의 외도’와 ‘장자의 죽음’에 어떤 해법을 생산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도출된 결론을 미리 말하면 이 해법은 블룸이 의식의 층위가 아닌 무의식의 층위에 열릴 때 실마리가 찾아진다. “일어났던 일만 가능했던 것인가?”(*U* 2.51)에 대한 스티븐(Stephen Dedalus)의 의문은 “무한한 가능성의 방”(*U* 2.51-52)의 문을 열게 한다. 여기서 무한한 가능성은 사후적으로 고려되는 범위를 넘어 “가능하지 않았던 것들도 가능할 수 있었던”(*U* 2.52) 잠재성

1) 본 논문은 『율리시스』의 소제목을 사용하지 않고 에피소드 순서에 따라 ‘장’으로 표시한다. 이것은 조이스가 출판할 때 소제목을 제거하라고 말한 이유에 근거한다(Birmingham 198). 아울러 본고의 모든 한글 번역본은 번역문을 참고해 필요한 곳은 수정했으며 번역본이 없는 경우는 필자가 번역했음을 밝힌다.

으로 실재의 영역을 포함한다. 본 논문의 요지는 온종일 블룸의 의식을 지배하는 위의 두 문제에 대한 해결은 15장의 환상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실마리를 찾는다는 데에 있다. 15장이 환상 속에서 잠재적 실재를 표현하는 것이라면 16장과 17장에서는 환상을 겪고 현실로 돌아온 후, 변화를 보이는 블룸에 초점을 둔다. 아울러서 그 변화는 18장에서 조이스가 묘사한 “몰리의 흐름”(Boheemen 76)과 연결된다는 점에서도 『율리시스』 전반을 관통하는 주제이다.

조이스가 파워(Arthur Power)와 나눈 대화에서 언급하는 “기저의 흐름,” “잠재적인 것,” “현실화한 것”(Power 74-75) 등은 들뢰즈가 “욕망적 생산”(desiring-production)의 ‘흐름’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들과 겹친다. 15장의 환상을 분석하면서 들뢰즈의 개념을 불러오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란 틀을 거부하는 들뢰즈의 ‘욕망적 생산’의 흐름이 조이스가 문학적으로 구현한 고삐 풀린 자유로운 삶에 이론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추상적이지 않은 이념인 들뢰즈의 개념은 블룸이 겪는 환상의 실증성을 담보해준다. 그러나 들뢰즈의 개념은 블룸이 겪는 환상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것일 뿐 조이스가 암시하지 않은 것을 덧씌우는 것은 아니다. 조이스의 작품 안에는 이미 들뢰즈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이스에게 ‘흐름’은 “탁월한 인간들의 대뇌 회백질 주름”(U 16.751-52)이 매개가 되는 정신적 각성으로써 “현현”(epiphany)이기에 앞서 신체로 느껴지는 감각적 경험의 차원이다. 정신을 육체의 우위에 두지 않으며 정신과 육체를 이분화하지도 않는 조이스는 “마음의 집”(home of full human personality) (Budgen 21)인 신체로 전해지는 인간 정신을 구현한다. “신체의 서사시”(Budgen 21)인 『율리시스』를 통해 조이스는 신체로 감각되는 환상의 차원을 의식의 층위로 환원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구현하는 조이스의 문학 언어에 실증성을 담보해주는 들뢰즈의 개념은 우리를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을 구분하는 이분화된 사고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것의 경계가 중화되는 것을 긍정하게 한다. 들뢰즈적으로 말하면, 블룸이 무한한 가능성의 방을 나와 욕망적 생산의 주체가 될 때 『율리시스』는

책-기계가 되고 독자도 블룸에게 전염되어 조이스의 “혼우주”(chaosmos)와 들뢰즈의 “내재성”(immanence)을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그 현실에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최근의 논문에서 조성경(Sunggyong Jo)은 『율리시스』를 들뢰즈와 가타리(Félix Guattari)의 개념인 ‘기계’로 읽으면서 상식과 동일성에 기초한 인식에 균열을 만들고 강도의 차이로 “환상을 생산하고 작동시키는 예술의 역할에 주목했다”(126). 문학-기계는 환상을 통해 “기존의 질서, 동일성, 상식에 기초한 인식을 와해시키며 복합적 정동, 강도적 감각, 차이를 발산한다”(127). 그러나 저자는 잠재적인 것이 실재하는 무의식의 층으로 논지를 전개하지 않는다. 즉 블룸-기계에서 블룸의 신체는 “성별, 성차, 성애의 다양한 차이들이 실험되고 묘사되고 수행되는 장소이”(138)지만, 블룸의 신체에서 잠재적인 것이 현실화 과정을 겪는 변용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단계로까지 진척시키지 않았다. 들뢰즈의 “욕망 기계”는 기계론적(mechanic)이지 않고 기계적(machinic)이다. 기계론주의(mechanism)가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는 닫힌 기계에 관한 것이라면 욕망 기계는 연결들과 생산들에 불과한(Colebrook 56) 열린 체제이다. 본 논문은 블룸의 신체에서 어떻게 그런 변용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성에 주목할 것이다. 그런 취지에 근거하면 환상은 억압된 것에 저항하는 문학적 상상력이나 초월적 승화가 아니라 인식된 삶의 표면의 아래에서 이전에 경험한 적이 없는 잠재적인 것이 표면을 뚫고 부상하는 사건들과 조우하는 시간이다. 본 논문은 기계의 특성인 연결과 단절을 통해 잠재적인 것이 어떻게 현실화 과정을 겪는지 들뢰즈의 욕망적 생산의 ‘흐름’의 과정을 통해 실증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15장의 환상에 관한 연구는 현실화한 것에 저항하는 1)정신 분석이나 혹은 초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꿈으로 또는 2)블룸이 만든 대본 혹은 3)이미 일어난 과거를 반복하면서 다시 쓰는 대항 담론 등으로 연구되었다면 본 논문은 환상을 욕망적 생산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블룸이 그 체제에 근접해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들뢰즈를 빌

어 환상을 이해하는 것은 지금까지 연구된 인식론에 근거한 해석을 전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독법이 다루지 않은 빈칸을 읽는 새로운 시도이다. 조이스는 자신의 예술론을 직접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그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거나 그에 정통한 사람들(Gilbert, Budgen, Power, Ellmann)을 통해 살펴보면 그가 문학에서 믿고 있는 “영원히 긍정하는 인간 정신”(U 17.30)은 욕망의 결핍이 아닌 들뢰즈의 욕망적 생산의 흐름과 조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이스가 15장을 가장 현실에 근접한 장이라고 말한(Power 75) 이유도 환상은 기저의 힘이 표출되는 것이며 그 에너지를 우리가 믿고 있는 현실에서 배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규범화된 질서와 공존하지만 보이지 않는 기저의 ‘흐름’을 긍정할 때 비로소 ‘기관화된 신체’가 아닌 충만한 “기관 없는 신체”(body without organs) 위에서 흐르는 ‘순수 욕망’과 만나고 그것의 현실화 과정에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삶에 조금 더 근접할 수 있게 된다.

II. 욕망적 생산의 흐름

1. 조이스의 흐름

조이스는 『율리시스』의 의미는 작품의 기교, 암시, 어조 속에 내포되어 있다(Gilbert 9)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조이스의 변화무쌍한 문체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변신을 이루는 시도로 ‘무엇’을 직접 말하지 않고 암시하기 위한 장치이고, 단일한 목소리로 모이지 않는 복수의 화자들은 창조자인 작가의 목소리를 드러내지 않는 연출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10장을 전후로 『율리시스』의 전반부는 의식의 흐름으로 화자가 있지만, 전지적이지 않고, 후반부는 화자의 정체성이 단일하지 않고 인간이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 모호하다. 이런 이유로 『율리시스』에는 화자와 별개로 조정자(arranger)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총체성이 부재한 조이스의

문체는 암시된 의미를 찾는 일을 어렵게 하고 이는 역설적으로 독자를 흐름 속에 머물게 하면서 개연성이나 상식 또는 통념에 기대지 않고 기호와 마주하게 하는 ‘열린 전체’로 이끈다. 조이스가 말하듯이 “현대의 주제는 명백한 조수에 역행하며 기저에서 흐르는 힘인 숨겨진 흐름에 관한 것”(Power 54)이기 때문이다.

조이스에게 중요한 것은 인물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존재의 근원이 되는(Gilbert 8) 존재론적 글쓰기이다. 따라서 조이스의 작품은 인물들의 태도와 행위에서 동기를 찾아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를 반추하는 심리적 추적도 아니고, ‘현실화한 것’을 전복하는 것도 아닌, 현실화한 것의 표면 아래에 실재하는 것이 ‘부동의 모터’가 되는 ‘자기원인’(cause of itself)에 대한 탐색이다. 다시 말하면 욕망의 “제1원인”(First Cause)(U 16.758)은 이데아(Idea)도 초월자도 아버지의 법도 아닌 ‘자기 자신’이다. “현대 작가가 현실화한 것보다 잠재적인 것-미지의, 심지어 환상의 영역-에 훨씬 관심이 많”(Power 75)은 이유이다. 조이스는 체험된 삶과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비자발적으로 떠올려진 기억과 만나는 순간을 통해 “프루스트가 했던 것처럼 . . . 현대적 자아와 물질세계의 새로운 융합을 창조한다”(Power 74). 조이스는 그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의 삶이고, 삶의 진실에 다가가는 작가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주의 작가가 아닐 수 없는 조이스는 그러나 현실반영론을 말하는 사실주의 작가가 될 수는 없었다.

삶의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라고 여겨지는 이데어나 신적 존재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표현해(express)야 한다”(Power 95). 조이스에게 그것은 “도시의 사회적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차이들”을 표현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달콤한 냄새만 있는 고전주의 예술”이 아니라 “다른 냄새”를 표현하는 것이다(Power 95). 조이스가 추구하는 글쓰기는 “미리 정해진 어떤 계획에 맞추지 않고 써 나가면서 끊임없이 변하는 인물의 정서적 고무에 따라 그것의 형태를 만들어나간다”(Power 95). “성냥불을 켜는 사소한 행동으로 그 이후의 삶이 결정

되”(U 7.763-65)듯이 말이다. 조이스에게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것은 ‘흐름’ 속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포착하는 것이다. 조이스는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삶의 진실을 누르고 있는 의식의 단단한 표면을 뚫고 나오는 존재의 본질과 만난다. 조이스는 따라서 “단단한 표면인 의식의 하부에 흐르는 숨겨진 세계를 탐험한다”(Power 74). 들뢰즈적으로 말하면 시뮬라크라(simulacra)를 표면으로 부상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다.

조이스가 15장을 가장 현실적인 장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감각”(sensation)의 재현이나 “환상”(hallucination)을 통해(Power 75) “가시성의 불가피한 양상”(U 3.1)과 “가청성의 불가피한 양상”(U 3.13)을 뚫고 잠재적인 것이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조이스가 묘사하는 15장의 환상은 따라서 단순한 문학적 상상력의 소산이 아니라 흐름 속에 내재하는 존재의 본질로 자기원인과 마주하는 시간이다. 흐름의 환상은 지금 여기의 삶과 연결이 끊어지는 언어 바깥(outside language)이 아니라 “언어의 바깥”(outsided of language)(Deleuze, *ECC* lv)으로 동전의 양면처럼 현실의 이면에 존속하는 시간이다. 흐름은 환상을 통해 “우리를 기다리는 [구조의] 공백(void)”(U 1.661-62) 안으로 들어간다. 그곳은 “결혼도, 영광 받은 인간도, 아내가 그 자신이 되는 양성의 천사도 없”(U 9.1051-52)는 무규정의 시간이다. 조이스는 질서의 기원이 되는 무규정의 세계를 표현하면서 환상과 현실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외부의 초월자가 아닌 ‘자기원인’으로 질서를 만드는 “혼우주”를 표현한다. 15장은 따라서 『피네건의 경야』(*Finnegans Wake*)의 미리 쓰기(김경숙 11)이고 『피네건의 경야』에서 구축하는 혼우주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2. 들뢰즈의 흐름

조이스의 문학에서 발견되는 현대성과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기저’의 흐름은 들뢰즈의 개념과 불가피하게 조우한다. 당대의 모더니즘 작가들과 달리 조이스의 글쓰기는 “의식의 흐름”에서 탐색하는 잠재의식보다 더 깊

은 우주의 시발점인 카오스(Chaos)로 역행한다. 그것에 공감하려면 현대 철학일지라도 근대 철학의 전통에 명맥을 잇는 철학이 아닌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중화하는 들뢰즈의 비-철학이 필수적 도구가 된다. 들뢰즈가 사유는 강제된다고 말하는 이유도 강제된 사유만이 우리를 기호작용(signification)에서 벗어난 잠재적 실재와 만나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조이스가 말하는 기저에 흐르는 잠재적 힘과 조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들뢰즈의 비-철학은 독자를 “이름에 속지”(U 16.362) 앓고 작가가 암시하고자 하는 것, 참과 거짓의 대상인 명제가 아니라 명제에 의해 ‘표현된 것’(what is expressed)과 만나게 한다. ‘기호작용’에 근거한 ‘표현’과 혼동해서는 안 되는 ‘표현된 것’은 일종의 역설로 “실존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명제 속에 존속하는”(Deleuze, *LS* 21) 순수 사건으로 가부장적 질서를 지탱해주는 가족 삼각형에 균열을 일으키는 요소이다. “표현된 것은 표현보다 선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앞서 존속하며, 그래서 표현에 기초와 조건을 부여한다”(LS 181). 들뢰즈는 욕망적 생산의 흐름의 실증성을 어떻게 담보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들뢰즈는 경제 논리인 생산, 분배(분리), 소비의 과정을 통해 삶에서 욕망적 생산을 ‘흐름’으로 개념화한다. 유물론적 형이상학인 욕망적 생산은 라캉(Jacques Lacan)의 “불가능한 실재”(Deleuze & Guattari, *AO* 53)를 생산하는 욕망의 경제학이다. 들뢰즈의 욕망 기계가 은유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도 리비도(Libido)는 억압되지 않고 누멘(Numen)으로 그리고 블롭타스(Voluptas)로 변용되면서 욕망을 생산하는 주체를 존재론적으로 실증하기 때문이다. 들뢰즈에게는 그것이 진짜 삶이다.

욕망 기계의 첫째 양태는 연결 종합에 리비도를 채취 에너지로 동원한다. 둘째 양태는 분리 종합에 관련되며 누멘을 이탈에너지로 동원한다. 셋째 양태는 결합 종합에 관련되며 블롭타스를 잔여 에너지로 동원한다. 바로 이 세 양상 아래에서 욕망적 생산의 경과는 생산의 생산인 동시에 등록의 생산이고 소비의 생산이다. 채취하기, 이탈하기, “여분 남기기” — 이것이 생산하기이며, 욕망의 현실화 작업을 수행한다.

(Deleuze, *LS* 41 필자 강조)

욕망적 생산은 자신의 생산물에서 소외되지 않는 긍정의 욕망으로 잉여 에너지를 “사회적 생산”(social production)에 빼앗기지 않는다. 대신 부분 대상으로서 생산 주체가 그것을 직접 향유하면서 욕망적 생산의 과정을 반복한다. 각각의 양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생산의 첫째 양태로 욕망 기계들의 부품인 부분대상은 일차적으로 생산에 관여하며 욕망 기계는 “무한히 새로운 것을 생산한다”(“and...” “and then...”)(*LS* 5). 연결을 통해 흐름을 통제하지 않는 ‘이항 기계’인 욕망 기계는 언제나 흐르면서 절단하고 다시 흐르는 연결 생산(productive connection)이다. 욕망 기계는 연결과 절단의 법칙에 따라 흐름을 지속한다. 둘째 양태로 생산적 연결들인 생산물이 분배를 위해 첫째 양태의 기계에서 모든 경과를 등록하는 표면 노릇을 하는 ‘기관 없는 신체’로 이행할 때(노동에서 자본으로 이행하듯)(*LS* 11) 배타적 분배가 아닌 포함적 분배의 법칙 아래 들어간다(*LS* 12). 이것이 분리 생산(disjunctive production)이다. 이때 분리 종합의 포함적 분배의 법칙 아래 “분열증적인 ‘... 이견 . . . 이견’이 연결 종합의 ‘그다음에’와 교대한다”(LS 12). 이때 ‘기관 없는 신체’는 생산 전부를 끌어당겨 기적을 낳는 마법적 표면 노릇을 하고 동원된 이탈 에너지(누멘)로 생산 전체를 자신의 모든 분리 속에 기입한다(*LS* 13). 분배의 과정 중 생산물에서 ‘뭔가’(잔여 에너지: 블롭터스)가 이탈하는데, 이 뭔가는 ‘기관 없는 신체’ 위에서 유목하는 주체에게 주는 여분의 에너지이다(*LS* 26). 생산 주체(마르크스 생산 주체와 달리)는 여분의 에너지를 향유하고 변용의 역량을 보유한다. 이것이 셋째 양태인 소비 생산(production of consumption)으로 독신 기계의 탄생이다.

욕망적 생산의 흐름은 멈추지 않고 “고정된 정체성이 없는 [독신 기계는] 기관 없는 신체 위를 유랑하며 늘 욕망 기계들 곁에서”(LS 16) 변용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그때마다 “그들은 나다. 따라서 그것은 나다”(LS 21)라고 외치는 주체이다. “이것은 나의 엄마이고 이것은 나의 아빠이다. 따라

서 이게 바로 나다”(LS 20)여야 하는 배타적 분배 법칙에 포획되지 않는다. 독신 기계는 총체화되지 않는 열린 전체의 부분으로 부분 자체인 자신에게 할당된 몫(LS 41-42)을 소비한다. 이때 독신 기계는 생산의 과정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고 생산의 과정을 반복하며 다른 신체로 이동한다. 이 주체를 들뢰즈가 ‘고아’라고 말하는 이유도 독신 기계는 가족 삼각형에 주어진 항에 고정되어 이름을 갖고 정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이를 편력하면서 욕망적 생산을 흐르게 하기 때문이다. 이 주체는 ‘기관 없는 신체’의 미분화(微分化)를 부수지 않으면서 거기를 돌아다닌다(LS 40). 이 주체는 “자신이 경유하는 상태들을 소비하고 이 상태들의 각각에서 계속해서 새롭게 태어난다”(LS 41). 거세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혹은 거세의 위협에 반응하지 않는 이 “이상한 주체”(LS 16)는 자기 이익의 대부분을 희생하더라도 “온전한 인물”(global person)(LS 70)이 아니라 부분으로 살아남는 길을 택한다(LS 41).

들뢰즈의 욕망적 생산의 ‘호름’이란 열쇠로 『울리시스』를 읽는다면 독자는 조이스가 구축하는 혼우주에 좀 더 근접할 수 있으며 인간의 본성은 억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유로 전회한다. 사유는 습관을 넘어 사회적 생산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기계의 양극을 유연하게 편력할 수 있게 된다. 욕망 기계의 반대 극이라 할 수 있는 사회 기계는 욕망 기계와 다른 기계가 아니다. 두 기계는 본성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며 다만 운동방식이 다른 두 체제일 뿐이다(LS 31). 『울리시스』가 읽기에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욕망 기계가 아닌 ‘사회 기계’인 아버지의 법의 체제로 구축된 사회적 생산에 익숙해져 있으며 그것이 유일한 현실이라는 견고한 믿음에 의해 떠 받혀져 있기 때문이다. 라이히(Wilhelm Reich)는 우리가 ‘예속을 욕망하는’ 체제에 습관화되어 있다는 것을 옳게 간파했다(LS 29). 그것이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지만 말이다.

사회 기계는 욕망 기계와 달리 ‘기관 없는 신체’ 위에 있지 않고 사회체에 전유 되어있다. 사회 기계는 욕망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억압하는 이상한 모험”(LS 32)을 한다. 이것이 생산 과정에서 체험하는 욕망적 생산과 사회적 생산의 차이이다. 욕망 기계이지만 금지의 욕망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생산은 사회 기계를 작동시켜 ‘기관 없는 신체’의 등록표면을 장악하고 누멘을 탈취한다. 분리 종합의 에너지인 누멘을 제거한 사회체는 ‘기관 없는 신체’와 달리 “여분의 생산물을 전유하고 과정 전체와 부분들을 착복한다”(LS 10). 누멘이 흐르지 않는 사회 기계는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리비도를 “가족 로맨스”를 위해 소진하고 부분대상으로 복귀하는 생산 과정을 차단한다. 대신 ‘온전한 인물’로 충만한 사회체에 매달려 등록의 표면에 억압의 대리자로 ‘가족’을 기입한다. 사회체는 “욕망의 흐름을 코드화하고 기입하고 등록하여 막거나 수로화하여 규제되지 않는 그 어떤 흐름도 흐르지 못하게 한다”(LS 33). 욕망적 생산의 등록표면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타나고 아이는 닫힌 삼각형의 한 향이 되어 신경증자가 된다. 이때 아이는 더는 생산 과정을 살지 못하고 금지된 욕망을 학습하고 욕망의 흐름은 정체된다. 이 주체에게 향유는 언제나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여기’가 아니라 ‘너머’에 있기 때문이다.

들뢰즈는 삼각형화는 욕망의 흐름을 어떻게 좁은 수로에 가두어 놓을 수 있는지(LS 47-8)를 가시성의 세계에 근거 지워진 인간의 지성은 이제 진지하게 “기관 없는 신체 위에서 숨을 쉬고 있는 기계인 ‘나’에게 물어 야”(LS 48) 하지 않냐고 말한다. 그것은 신비적인 것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에 자신을 여는 긍정의 삶이다. 들뢰즈는 문학 비평을 통해서 억압을 욕망하는 ‘이상한 모험’에 포획당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역량으로 프루스트(Marcel Proust)론에서는 ‘사유의 해방’을, 카프카(Franz Kafka)론에서는 ‘욕망의 해방’을 말한다(서동욱 103). 그러나 조이스는 사유와 욕망의 해방을 블룸을 통해 동시에 구현한다. 우리는 『율리시스』에서 블룸이 기호와 마주하고 소수자-되기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블룸은 영웅은 아니지만 “거대한”(gigantic) 인물이 되어간다(Deleuze and Guattari, *WP* 171). 조이스는 블룸이 아내의 외도와 아들의 죽음에서 마주친 기호를 통해 가족 삼각형에서 탈주하는 욕망적 생산을 블

름을 통해 구현한다.

III. 블룸의 분자적 욕망의 변용

1904년에 ‘가시적인 것과 가청성의 불가피한 양상’에 대한 의문을 가진 스티븐은 멀리건(Mulligan)의 말대로 10년 뒤에 쓰기(U 10.1089-90) 시작한 『율리시스』의 15장에서 그 한계를 넘는다. 여러 비평가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책”으로 일컬어지는 책인 『율리시스』에서 특히 15장은 환상을 통해 욕망의 결핍이 아닌 욕망적 생산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표면을 창조해야만”(Power 95)하는 조이스의 글쓰기는 15장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조이스에게 현대의 세계는 “하나의 평면이 아니라 그 평면의 아래에서 흐르는 기저의 힘을 포착하는 것인”(Power 54)데 환상을 통해 주체 이전의 ‘순수 욕망’이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15장에서 블룸은 더는 닫힌 삼각형 속에 갇혀 있는 ‘온전한 인물’이 아니다. 블룸은 무규정 상태의 ‘알’(egg)(Deleuze & Guattari, AO 19)인 강도=0에서 출발하여 강도 상태들의 계열을 경유할 때마다 “... 이진 ... 이진”을 발산하는 구성된 ‘자아’인 이성적 주체에서 탈주하는 분열증적 주체로서 독신 기계이다. 블룸이 생각하는 혁명이 “분할식”(U 16.1101)인 이 유도 이를 뒷받침한다.

먼저 블룸의 인식론적 위치를 점검하고 기저에 흐르는 증상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자. 유대인인 블룸의 아버지(Rudolf Virag)는 헝가리(Hungary)의 솜버헤이(Szombathely)에서 부다페스트(Budapest), 빈(Vinnea), 밀라노(Milan), 피렌체(Florence), 런던(London)을 거쳐 더블린(Dublin)으로 이주했다. 1865년에 더블린에서 신교인 아일랜드 교회(Irish church)로 개종하고 같은 해에 유대인 이름(Virag)을 버리고 블룸(Bloom)으로 개명했다. 블룸의 아버지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신교로 개종했지만,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은 버리지 않았다. 블룸은 자신에게 유대인 전례서(hagadah

book)를 읽어준 애처로운 아버지를 기억한다(U 7.206-07). 블룸의 아버지는 “펜스(pence)를 귀여워하면 파운드(pound)가 당신을 귀여워한다”(U 17.1910-11)는 말을 교훈 삼아 마침내 에니스(Ennis)에 있는 한 호텔(Queen’s hotel)의 주인이 된다. 그러나 그는 1886년 70세의 나이에 약물 과다로 자살한다. 블룸은 아버지의 시신을 보지 않았으며 죽음은 아버지를 위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때 블룸이 20살이었고 블룸은 1888년, 스티븐의 현재 나이인 22살에 몰리(Molly)와 결혼한다.

블룸은 아버지와 달리 종교를 믿지 않는다. 블룸은 1880년에 아일랜드 교회를 버렸고 1888년에 몰리와 결혼하기 위해 가톨릭으로 다시 개종한다. 블룸은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유대인이 아닌”(U 16.1085) “아일랜드인이다”(U 16.1131-32). 그러나 주점(Barney Kiernan’s)에 있는 더블린 남자들은 블룸을 아일랜드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욱이 블룸은 고양이도 지키는(U 4.276-77) 유대인의 식습관(Kosher)도 따르지 않는데도 말이다. 블룸은 15살이 된 딸(Milly)을 두었지만, 아들(Rudy)은 태어난 지 11일 만에 죽었다. 유대인의 관습으로 아들이 없으면 유대인 남자는 남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블룸이 남성이라는 정체성을 인정받으려면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블룸은 더는 자식을 낳으려 하지 않는다(U 18.1449-50). 이는 블룸이 몰리와 번식을 위한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그것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로 몰리는 블룸의 목인 아래 혼외관계를 맺기도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블룸은 민족주의가 팽배한 더블린의 남성 중심사회에서 고정된 자리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 블룸 또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못한다(I. . . . AM. A.)(U 13.1258-64). 들뢰즈의 용어를 빌리면 블룸은 더블린에서 “자리 없는 거주자”(LS 41)로 “바람을 찌는 사람을 기다리는 공백”(U 1.661-62)에 위치한다. 따라서 세계주의자가 되지 못하고 민족주의자로서 더블린의 남성을 대표하는 이름을 가진 시민(Citizen)에게 블룸은 유대인일 뿐이며 그의 남성성도 의심받는다. 그러나 정확하게 따진다면 그들은 틀렸다. 블룸은 혈통적으로도 유대인이 될 수

없으며(Gifford 573) 자손을 들이나 낳았으니 생물학적으로도 온전한 남성이다. 그러나 사실관계에 상관없이 블룸은 어디에도 정주하지 못하는 “도착적 유대인”(perverted jew)(U 17.1635)이고 “이도 저도 아닌 중성인”(mixed middlings)(U 12.1659)으로 취급받는다. 다른 층위에서 본다면 블룸의 이런 모습은 차라리 블룸이 아일랜드인-되기에 그리고 남성-되기에 고착하지 않는, 그래서 (스티븐과 달리) 더블린을 떠나지 않고도 탈주하는 자발적 망명자의 증상이다. 아일랜드인도 아니고 남성도 아닌 블룸은 더블린의 남성 중심 문화에서 “떠도는 기표”(floating signifier)(LS 49)로 공백에 위치한다. 블룸은 더블린의 남성 중심사회에서 아버지의 자리를 잃었지만, 여전히 더블린에 거주하는 아일랜드인이며 밀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역할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타자의 욕망이 아니라 욕망적 생산의 체제에 근접해있는 블룸은 “존재 외”(extra-Being)(LS 7)로 아버지의 법의 바깥에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도착적 유대인이자 중성인으로 좌표점이 없지만, 그 대신에 블룸은 시민과 달리 “어떤 것에도 제약받지 않고 막힘없이 흐르는 리비도를 갖는다”(AO 65). 블룸은 주점에 있는 남자들과 달리 술을 마시지 않으며 그의 리비도는 마비되지 않고 흐른다.

아버지의 법의 바깥에 있는 블룸의 증상은 남성 중심사회와 조응하지 않는다. 또 다른 것으로 아내의 외도와 아들의 죽음에 부수된 증상도 가족 삼각형에 균열을 내는 중추적 요소이다. 이로 인해 견고한 아버지의 법에 틈새가 생기고 가족 삼각형은 흔들린다. 아내의 외도를 묵인하고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하면서 블룸은 의도치 않게 부르주아(Bourgeois) 가족 제도의 공백을 드러내고 스스로는 본의 아니게 제도에 종속되지 않는 조건을 갖춘다. 오이디푸스(Oedipus)의 덫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거기에서 파생된 삶이 아니라 “어떻게 어떤 조건에서 어떤 압력들 아래서 오이디푸스 삼각형화가 과정의 등록 속에 개입하는지를 처음부터 보아야 하”(AO 49)는데 블룸은 그 조건에서 구속되어 있지 않고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인한 억압에서 기인하는 강박에도 자유롭다. 정신분석이 부르주아 가족이란 “인공 삼각형” 안에 가둔 성(sexuality)이 “자연과 생산이라는 공장”(AO 49)으로

되돌려지자 욕망 기계는 작동하기 시작하고 ‘시계 시간’은 멈춘다.

10시 이후의 시간이 배경이 되는 15장에서 블룸은 시계 시간에 포착되지 않는 무의식으로 난입한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블룸은 이미 가족 삼각형을 견고하게 지탱하는 시계 시간에 속박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블룸의 시계는 물리가 보일린(Boylan)과 만나기로 예정된 시간쯤에 작동을 멈추었다. 블룸은 시계가 멈춘 것을 몰랐지만, 물리의 밀회시간 이후로 조금씩 “안전한 남자”(U 8.982)에서 멀어지며 비가역적인 기계론적 시간에서 해방되어 “과거는 지난날의 오늘이고 지금(now)은 어제가 지나서 된 것처럼 지금은 이어 내일이 되”(U 15.2408-10)는 아이온(Ion)의 시간으로 진입했다. 다른 말로 하면 “과거의 나는 현재의 내가 되며 그리하여 필경 미래의 내가 된다. 따라서 과거의 자매인, 미래 속에,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이다”(U 9.383-85). 블룸은 “펼쳐지는 과거와 미래로 분해되면서”(LS 62) 양방향으로 동시에 흐르는 시간에 휩싸인다. 블룸이 현실에서 체험하는 환상은 ‘표현된 것’으로 독신 기계가 욕망적 생산의 체제인 ‘기관 없는 신체’ 위에서 유랑하는 것을 보여준다. 조이스에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은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그 현실뿐만 아니라 그 현실에 환상을 도입하여 포함적 분배 법칙 아래에서 작동하는 분리생산이 이루어지는 표면이다. 블룸은 환상과 현실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식별 불가능의 지대로 난입해 들어간다.

환상적인 것은 ...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것’에 대한 한정된 틀을 벗어나고 ‘언어word’와 ‘시선look’의 통제에서 벗어난 공간을 도입한다. ... 변형과 차이를 욕망하는 환상은 초월적 대응물과는 달리 초자연적인 허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며 과거에 대한 향수에 젖어 있지도 않고 초인간적인 개입으로 차이를 성취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고 있지도 않다. ... 환상적인 것은 우리가 그것에 의존하지 않는 한 접근할 수 없는 어떤 경계를 넘어갈 수 있게 해준다. (Jackson 104-05)

환상의 권리를 말하는 들뢰즈에게 환상은 “시간-사이”(entre-temps)에서 욕

망이 해방되는 사건과 마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환상은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언어로 구조화된 상징계에서 재현할 수 없는 것과 마주치는 시간으로 통념과 상식을 거스른다.

‘안전한 남자’였던 블룸은 15장에서 그 가면을 벗는다. 시계 시간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블룸의 모습이다. 가면을 벗은 블룸을 살펴보자. 여성들에게 성적 일탈을 권유하는 블룸은 “더블린에서 최고의 악한”(U 6.202)인 보일런에 버금간다. 시계 시간에서 블룸의 관음증은 수치스러운 것이고 그의 비규범적 성적 행위는 물리의 외도와 연관시키며 간헐적인 것처럼 위장되어야 했지만, 포괄적 분배 법칙 아래 있는 기관 없는 신체 위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은폐되어야 할 명분을 잃는다. “본능이 작동”(U 15.2457-58)하는 시간이다. 안전하지 않은 남자인 블룸은 집안일을 도와주는 드리스콜(Driscoll)을 성적으로 희롱하고 부르주아 여성들에게 꽃을 보내고 유혹하며 다른 남자와 4시에 성적 관계를 맺으라고 부추긴다. 부르주아 여성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적 코드인 “정숙한 아내”(U 12.1006)의 역할에서 벗어나라고 요구한다. 블룸은 여성들에게 “이득을 남기는 장사꾼”(U 2.359), “신성한 생명의 창조자”(U 15.4648)가 되라고 한다. 블룸은 정말 보일런과 같은 악한이 되고 싶은 것일까? 블룸은 여성들을 희롱하는 것일까? 포괄적 분배 법칙을 따르는 분리생산으로 본다면, 그와는 반대로 블룸은 아일랜드에 비유되는 여성에게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는 정숙한 아내란 족쇄를 풀고 그들에게 생명의 욕망을 일깨우려 한다. ‘이상한 주체’인 블룸은 “영혼을 살 능력이 없는 그들[=(가톨릭)]이 값싸게 팔아버린 신체[=(아일랜드)]”(U 16.737)로 대변되는 여성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고 소수자인 여성의 잠재적 역량을 고취하는 것이다. 블룸은 말한다. “말하라, 여성이여, [신을 대신하는] 신성한 생명의 수여자여!”(U 15.4648-49)라고 말이다. 블룸은 여성에게 그들이 잃어버린 과거와 만나라고 간청한다. 스티븐이 “깨어나려고 하는 악몽인 역사”(U 2.377)와 단절해야 비로소 새로운 양심을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기관 없는 신체에 매달려서 다른 신체로 이동한 블룸은 의사인 멀리건

에게 “양성적 변태”(bisexually abnormal)(U 15.1775-76)라는 진단을 받는다. 의사 디슨(Dixon)에 의하면 “새로운 여성적 남성(womanly man)의 본보기”(U 15.1797-98)인 블룸은 지금 아기를 낳으려고 한다. 그러자 블룸은 “엄마가 되고 싶다”(U 15.1817)라고 하면서 노랑고 하얀 아이 8명을 출산한다. 남성인 블룸이 아니라 여성적 남성으로 변용된 블룸이 아이를 출산한다. 남성이 출산할 수 없는 것은 조건화된 명제에서 참이지만 ‘여성적 남성’은 역설로 조건화된 명제의 진리체계에서 참과 거짓으로 가릴 수 없는 모순이다. 통념과 대비되는 역설은 “질서의 요구를 표현하는”(LS 75) 상식과 달리 “동일성 확인을 불가능하게 하는”(LS 75) 것이므로 아이를 출산하는 여성적 남성은 모순의 생성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들뢰즈에게 성은 남성과 여성으로 이분화하지도 또는 양성(兩性)으로 제한되지도 않는 ‘n개의 성’(n sexes)이다. ‘n개의 성’은 동일성에 기초한 외부 생식기의 차이가 아닌 차이 그 자체에 대한 사유이다. ‘n개의 성’은 ‘기관화된 신체’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항 사이를 수없이 가로지르며 방출되는 분자들의 운동이다. ‘n개의 성’은 “두 개가 아닌 복수의 성에서 다양한 자극에 따라 다양한 성으로 변화하는 성적에너지를 해방한다”(Mahaffey 35). 블룸이 환상 속에서 출산하는 것은 무한의 속성을 가진 ‘n개의 성’에서 생산되는 무한한 양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도 무한한 속성에 따라 무수히 변용되는 ‘n개의 성’의 양태들이라면 출산하는 여성적 남성도 n개의 성에서 특수한 자극에 따라 변용된 양태라고 볼 수 있다.

쉽지 않은 여정을 쫓아 우여곡절 끝에 스티븐을 찾아 직접 매음굴(Mrs Cohen’s)에 들어간 블룸은 이제 여성이 되려고 한다. 사창가 여성인 벨라(Bella)에게 남성적 권위를 주고 자신은 여성이 되어 벨로(Bello)가 된 남성성의 지배 아래서 굴욕을 자처한다(U 15.2864). 그러나 사창가에서 이미 아버지의 법으로 군림하는 벨라는 아버지의 대체물로 블룸에 의해 위임된 권력에 속지 않는다. 대신 벨라는 “여성-되기”(becoming-woman)가 아닌 여성을 모방하는 블룸에게 여성이 겪는 굴욕을 직접 체험하게 하며 블룸의 남성성이 보일런에게 조롱당하는 것을 누설한다. 여성을 흉내 내는 블룸

은 위임된 권력에 속지 않는 벨로가 아닌 벨라에게 굴욕을 당하자 갑자기 몰리에게 용서를 빈다(Forgive! Moll We Still)(U 15.3151). 블룸은 더는 여성을 흉내 내는 것을 지속하지 못한다. 사디즘(sadism)적 성향이 자신에게 선회된 것을 마조히즘(masochism)으로 진단하는 정신분석의 사도마조히즘(sadomasochism)과 달리 “아버지의 권위가 어머니에게 투여되며 아버지는 희생자의 인격 안에서 고문당한다”(Bogue 49)라는 들뢰즈가 주장하는 마조히스트(masochist)에 따르면 블룸이 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블룸이 가학자인 벨로가 아닌 아버지의 권위가 투여된 어머니인 벨라와 공모하여 아버지인 자신을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때 블룸이 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이상한 주체인 블룸이 내적인 아버지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Deleuze, ECC 53)고자 하는 욕망이며 이것은 문제에 해를 주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들뢰즈에게 마조흐(Masoch)는 환자가 아니라 세계를 진단하는 의사이자 작가(ECC)이기 때문이다.

블룸은 이미 이전에 아버지의 권위를 더는 희생자의 인격 안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듯이 자신의 몸에서 나는 땀 냄새를 맡으면서 “남성이 아니라 여성”(U 15.2962)이라고 외쳤다. 블룸은 자신이 여성으로 변용된 것을 ‘대뇌의 회백질 주름’이 아니라 신체로 느낀다. 닫힌 삼각형에서는 발산되지 않는 것이 ‘기관 없는 신체’ 위에서 발산되는 경험, 그 자체를 체험하며 인식의 범위는 가시성의 한계를 넘는다.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블룸의 순간적 외침이 “[블룸]은 여성(a woman)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느꼈다”(U 18.1578-79)라고 몰리가 인정하는 사건이 될 수 있다면 환상 속에서 블룸이 조우한 여성은 ‘개체로서의 그 여성(the woman)이 될 수 없고, 그 어떤 여성도 지칭하지 않은 잠재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여성(a woman)’(신지영 40)이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동일성으로도 아직 규정되지 않았으나 [즉 미분화(未分化)가 아닌] 잠재적으로 이미 미분화(微分化)되어있는 존재 그 자체인”(신지영 40) 어떤 여성과 블룸이 마주한 것이다.

블룸은 몰리에게 용서를 구한 이후에 몰리와 보일런의 밀회를 적극적으로

으로 도와주는 조력자가 된다. 환상 이전의 장과 비교하면 블룸의 변용은 예측의 범위를 넘어선다. 블룸은 이전에 몰리의 외도 현장은 물론이고 보일런을 대면하거나 생각하는 것조차 피하려는 니체(Friedrich Nietzsche)적 의미의 ‘반동적’인 태도를 보였다. 블룸은 대화 중에 보일런의 이름이 언급되면 초조함을 보이고 회피하거나 애써 무심한 척했다. 실제로 블룸은 보일런을 멀리서 보고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피해 박물관으로 도망가기도 했었다. 12장에서는 블룸이 보일런을 피하지는 않고 숨어서 지켜보는 용기를 냈지만, 그것은 사후적으로 보면 블룸의 시계가 고장 난 시점을 전후에서 불현듯 무의식적으로 솟아오른 용기인 것 같다. 이런 블룸을 생각하면 블룸이 몰리의 외도를 도와주는 조력자로 변용되는 것은 동일성의 반복에 불과한 변증법적 구조보다 더 깊은 재현될 수 없는 심층의 미세 지각과 블룸이 조우하는 것이다. 더구나 보일런이 블룸에게 자신이 몰리와 관계하는 것을 보면서 혼자 재미를 보아도 좋다고 허락(U 15.3788-89) 하자 블룸은 감사하다는 말까지 하니 말이다. 블룸의 변화무쌍함은 아내의 성에 대한 소유권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지에까지 이른다. 블룸은 아내의 성을 ‘온전한 인물’에서 채취되는 번식의 도구로 한정하지 않고 부분대상에 돌려준다. “입은 냄새 나는 담배통을 빠는 것보다 더 훌륭한 곳에 쓰일 수 있으니”(U 15.1350-51) 말이다.

들뢰즈와 가타리의 표현을 빌리면 ‘사적인 극장’이 아닌 ‘환상적 공장’에서는 단지 2개의 성만을 만들지 않는다. 공장에서는 무수한 성을 만들 수 있다. 욕망의 주체가 되려면 사적인 극장이라는 가부장적 상자로부터 탈주하여 몰리가 블룸에게 말하듯이 “넓은 세계를 보아야 한다”(U 15.330). 사적인 극장을 벗어난 블룸은 더블린 시장에 출마해서 “자연의 아이들”(children of nature)(U 15.1687)을 위해 새로운 세계를 생산하는 개혁을 하려 한다. “블룸성지”(Bloomusalem)(U 15.1544)는 “마돈나(madonna) 상 위에 견고하게 건립된 교회가 아니고 . . . [‘자유 화폐, 자유 소작료, 자유연애, 자유 세속 국가의 자유 세속 교회’(U 15.1693)라는] 신비성에 기초한다”(U 9.839-41). 자연의 아이들은 삼각형에서 항으로 작용하는 엄마

아빠를 모른다. 자연의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는 “유도자(inductor)일 뿐 조직자(organizer)가 아니다”(A0 91). “처음에는 알의 발달과 분화에 있어 진정한 ‘조직자들’이 부분들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었지만 . . . 알의 부분들이 자극을 피해 가는 특정한 능력 또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A0 91). 자연의 아이들에게는 “오이디푸스적 유도자인 자극이 진정한 조직자라는 믿음”(A0 92)이 주입되지 않는다. 블룸성지에서 조직자가 아닌 “자유로운 암탉 닭장에서 자유로운 여우”(U 15.1694)인 블룸은 베일을 쓴 무녀와 그리고 죽음도 불사하는 여자들로부터 광란적인 호응을 받는다. 그러나 블룸은 가톨릭 신부로부터 가톨릭을 믿지 않는다고, 아내에게 13번째 산고를 치르게 하는(U 14.515-17) 퓨어포이(Theodore Purefoy)로부터는 번식을 피하는 물리적 장치를 사용한다고, 또 도위(Alexsander J. Dowie)로부터는 성적으로 음란하다고 공격을 받는다. 리오던 부인(Mrs Riordon)과 그로건 할멈(Mother Grogan)도 블룸을 비난한다. 자유에 근거한 블룸성지는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체제와 반대 극에 있는 욕망적 생산이기 때문이다.

블룸은 욕망을 억압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포획되지 않기 위해 논쟁을 택하기보다 ‘기관 없는 신체’로 퇴각하고 그곳으로부터 다시 다른 신체로 이동하여 미래의 구원자로 변용된다. 블룸은 모세의 계보를 따르지 않고 임마누엘(Immanuel)이 아닌 “엠마누엘”(Emmanuel)(U 15.1869)로 ‘거세된 남자’(Eunuch)의 자손이 된다. 아버지로부터 거세의 위협에서 해방된 엠마누엘은 아버지의 법에서 해방된다. 이로 인해 “어떤 블룸(a Bloom)을 믿고”(U 15.1543) 블룸성지에 들어가는 사람은 신비한 자유의 흐름 속에서 무한한 생산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놓인다. 블룸성지는 “‘서로 침범하지 않은 개인의 자유를 무정부적으로 존중하는’ 공동체이다”(오길영 46). 다른 말로 하면 블룸성지는 사람들이 ‘기관 없는 신체’ 위에서처럼 배타적이지 않은 포괄적 분배의 법칙 아래서 잔여 에너지를 향유할 수 있는 체제로 작동한다. ‘분리생산’은 무엇이든 가능한 것으로 변용되는 속성을 가진 블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랑하는 주체는 잔여 에너지를 소비하며 스스로

변용의 역량을 키운다. 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블룸성지에서 그 에너지는 엄마, 아빠만을 위해 소진하는 삶이 아닌 ‘n개의 성’에서 방출되는 삶, 그 자체를 산다. 따라서 생명력을 억압하지 않는 것, 생산의 에너지인 리비도가 루멘으로 변용되고 다시 잔여 에너지를 향유하는 충만한 삶을 살고, 그 에너지를 자기원인으로 삼아 다른 신체로 이동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생산하는 과정을 사는 삶이라면 억압을 모르는 유토피아(Utopia)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블룸성지는 건설 중에 “빈민들이 사다리에서 떨어지고 충성스러운 구경꾼으로 인해 성벽 일부가 무너졌다”(U 15.1554-55). 엮힌 데 덮친 격으로 죽은 아들의 시체를 어깨에 메고 형틀로 걸어가는 도드(Reuben J. Dodd)는 구원자인 블룸에게 다가와 그가 밀고 당했으니 빨리 도망가라고 알려준다. 블룸은 박해를 피해 “구원자(I.H.S)란 표식이 새겨진 옷을 입고 불꽃 속에서 우뚝 서서 자신을 위해 울지 말라고 에린(Erin)의 여인들에게 당부한다”(U 15.1935-36). 그러자 에린의 딸들은 가톨릭 ‘신’이 아니라 블룸이 그날의 여정에서 경험한 것들(콩팥, 꽃, ... 비누...산파, 감자)에게 간청한다(U 15.1941-52). 거세된 계보를 잇는 블룸은 죽음의 순간에 아버지에게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지도 원망하지도 않는다. 자기 존재의 근원을 우주 바깥에 있는 신에게 찾지 않는 블룸은 혼자 아니라 600명의 합창대가 부르는 헨델의 메시아(Handle’s Messiah)를 들으며 탄화되어 간다(U 15.1953-56). 블룸은 “지금까지, 충분히 살았소. 잘 지내요. 그럼 안녕”(U 15.1968)이라고 말하며 죽는다.

구원자인 블룸이 죽고 세계의 종말에 대해 사창가의 여인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거세된 남자’의 계보를 잇는 구원자에 맞서 도위가 모세(Moses)의 계보를 잇는 엘리야(Elijah)의 도래를 외친다. 도위는 우주의 힘에 감응(vibration)하라고 한다. 우리들의 내부에는 “고차원적인 자아”라는 것이 있으므로 예수(Jesus)나 가우타마(Gautama, 석가모니의 성)나 잉거솔(Ingersoll, 불가지론자)과 같은 사람과 어깨를 겨룰 수 있다고 한다. 우리가 이 감응의 힘 속에 있다면 천국으로 가는 즐거운 여행은 보장된다는

것이다(U 15.2189-2201). 교회의 절대자가 교묘하게 ‘감응’으로 변용되고 인간도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교리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로 난무한다. 신의 절대적 위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가톨릭교회에 더는 예속될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이를 증명하듯이 도위는 대통령에게 처녀성을 잃어버린 사창가의 여성들을 도와달라고 호소한다(U 15.2222). 종교와 국가는 이름만 다를 뿐 사회적 생산으로 아버지의 법을 위해 작동하며 1904년 더블린에서 가톨릭교회는 세속적 권력과 결탁하여 욕망 기계의 반대 극에서 억압의 기제로 작동했다. 그러나 ‘블룸성지’는 “공중도덕의 개혁과 단순 명료한 십계”(U 15.1685-86)에 근거한 욕망적 생산의 체제에서 작동한다. 새로운 양심을 버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블룸성지는 영원히 도래할 미래로 욕망적 생산의 주체를 기다린다.

모자(cap)는 “죽음이 삶의 가장 높은 형태”(U 15.2098)라고 말한다. 블룸의 죽음은 분열자가 ‘기관 없는 신체’로 퇴각하는(Deleuze and Guattari, AO 80)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오이디푸스가 분열자를 어느 쪽이나 오이디푸스인 막다른 길로 몰아갈 때 분열자는 “강도(intensity)=0”인 알의 상태로 돌아가 비인칭적 죽음을 겪는다. 조이스도 자신이 창조한 더블린의 구원자인 블룸에게 삶의 욕망을 빼앗을 생각이 없다. 분열자로서 블룸은 임상 존재가 아닌 과정으로서의 분열증화를 겪는 삶을 택할(AO 113) 뿐 리비도의 흐름을 막는 죽음을 욕망하지 않는다. 블룸의 죽음은 생명으로 순환하는 과정이므로 분열자에게 삶의 가장 높은 형태가 될 수 있다. 강도=0인 충만한 ‘기관 없는 신체’ 위에서 죽음과 삶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분열자는 생산물에서 이탈한 여분의 에너지로 유량의 삶에서 작은 기쁨을 느끼고 부분대상으로 돌아가는 비인칭적 죽음을 통해 생산적 순환을 반복한다. “우리는 자기 내부를 통과할 때, 도둑, 망령, 거인, 노인, 젊음이, 아낙네들, 과부들, 사랑하는 형제들을 만나지만, 그러나 언제나 자기 자신을 만난다”(U 9.1044-46). 그러나 이것은 동일성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차이를 나타내면서 반복하는 역사”(U 16.1526)처럼 다양체로서 자기 자신과 만나는 것이다.

IV. 자기 자신과 만나는 블룸

블룸이 물리를 만난 것을 운명이라 하듯이(*U* 11.732)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되어있고 일어난 일은 직접적인 물체적 원인과 준원인으로써 비물체적 사건과의 연합(*LS* 94)의 결과이다. 조이스가 인용하는(“이 저녁에 유다가 외출하면, 그는 곧 유다에게로 가서 유다의 배신을 범할 것이다. 반면 소크라테스가 문을 열면, 문 앞에 기대앉아 졸고 있는 소크라테스와 맞닥뜨려 그는 소크라테스처럼 현명해질 것이다”(*U* 9.1042-44).) 마테를링크(Maurice Maeterlinck)는 말한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의 본성의 표출이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태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과 섞여서 우리 앞에서 나타난다. ... 세상의 모든 일들은 별통 주위를 맴도는 별떼처럼 우리 주위를 맴돈다. 우리 영혼에서 어떤 생각이 튀어나오기를 기다린다. (10)²

즉 블룸이 환상 속에서 체험한 무의식의 시간은 블룸의 신체에 흔적으로 남는다. 블룸이 향유한 여분의 에너지는 블룸이 현실로 돌아왔을 때 그의 문제를 해결하는 잠재적 역량이 된다. 블룸이 환상에서 영원히 머물지 않고 물리가 있는 “따뜻하고 충혈된 삶”(*U* 6.1004-05)으로 돌아올 때 블룸은 이성의 코기토(*cogito*)로 기관화된 신체가 아니라 미세 지각의 다발인 심층의 무의식과 단절되지 않는 자기 자신과 만난다. 블룸이 현실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블룸은 충만한 ‘기관 없는 신체’가 아니라 카셀 보일 오코너 피츠모리스 티스달 파렐(Cashel Boyle O’connor Fitzsmauris Tisdall Farrel)처럼 병든 ‘기관 없는 신체’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블룸은 자신이 부적처럼 여기는 어머니의 유물인 감자를 아직 조이(Zoe)로부터 돌려받지 못했지만, 스티븐의 얼굴이 창백해지자 창문을 열고 스티븐이 “똥”이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완전히 환상 바깥

2) 괄호 안의 10은 쪽수가 아니라 단락 번호이며 전체는 112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아닌 환상의 이면에 위치한다. 블룸은 그가 체험한 환상의 시간을 의식의 층위에서 기억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블룸이 자신의 땀 냄새를 맡고 여성임을 느꼈던 것과 몰리에게 용서를 구할 때 언어로 재현할 수 없던 기억은 흔적으로 남아 현실화 과정을 완성하게 하는 ‘삶의 수여자’가 된다. 언어로 재현되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 실재하는 것에 대한 감각적 재현의 효과는 블룸이 돌아온 현실에서 무엇을 창안하는지 16장과 17장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다시 말하면 들뢰즈의 관심은 몰리의 외도와 아들의 죽음을 승화시키는 것으로 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욕망적 생산이 지금 여기에서 현행 요인으로 작동할 때 도래할 미래에서 해를 찾는다.

블룸이 몰리에게 용서를 구할 때 그러나 언표화하지 못하고 웅얼거리던 그 순간에 블룸은 가부장적 질서에서 탈중심화되었고 그 이후에 몰리에 대한 블룸의 인식은 달라진다. 스티븐이 말하듯이 “분자는 변화”(U 9.205)고 블룸도 스티븐처럼 “지금의 나는 [과거와] 다른 나이다”(U 9.205). 변용의 주체인 블룸에게 몰리는 이제 욕망의 대상이 아니고 욕망의 주체가 된다. 10장에서 블룸이 몰리를 위해 『죄의 쾌락』(*Sweets of Sin*)이란 책을 사기로 한 결정(U 10.641)은 블룸이 몰리를 “욕망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지만”(Utell 91), 그러나 아직은 아니었다. 블룸은 그때 아내의 외도문제에 대해 욕망 기계와 사회 기계란 두 극을 유연하게 주파하지 못했다. 몰리가 인정하듯이 블룸이 “여성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느꼈다”면 그것은 블룸이 환상 속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자신의 신체로부터 떼어낸 후에 일어나는 들뢰즈의 용어로 말하면 “표면 효과”(surface effects)의 결과이다.³⁾ 블룸은 환상의 시간과 마주한 후에야 아내의 외도를 지켜보다 아내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남자에 대해 일말의 존경하는 마음을 부정하지 않고(U 16.1057-59) 다른 한편으로는 제삼자가 개입했을 때 결혼한 부부 사이에 진정한 사랑이 존재할 수 있는지(U 16.1385-86)를 자문해보는 양가적 감정을 보이면서 서서히 몰리의 외도문제에 대한 해에 근접해 들

3) 표면 효과는 잠재적인 것이 현실화할 때 물체적인 것들이 운동하는 표면에서 발생하는 효과이다(LS 4-11 참조).

어간다. 블룸은 자신의 문제에 스스로 답을 해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블룸은 폴리를 미워하지 않는다. 조이스는 블룸을 통해 부르주아 가정의 결혼 관계에서 계약이 아닌 사랑을 표면에 흐르게 한다. 블룸은 폴리가 보일런과 떠난다는 생각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폴리를 떠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남편 쪽에서 아내의 외도를 “어리석은 파도에 휩쓸린”(U 16.1387-88) 것으로 그리고 기질적으로 폴리의 “뜨거운 열정”(U 16.1407)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하면 폴리의 외도는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못한다”(U 16.1386).

한발 더 나아가서 블룸은 풍만한 가슴이 드러난 폴리의 사진을 슬그머니 스티븐에게 보여주고 그가 충분히 감상할 수 있도록 사진으로부터 시선을 돌린다. 블룸은 은근히 스티븐이 폴리에게 매력을 느끼기를 기대한다. 게다가 “그가 폴리를 미인이라고 말했다”(U 16.1478-79)라고 말한다. 블룸은 스티븐이 보일런을 대체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인가? 블룸은 자신의 아내가 스티븐과 알고 지내기를 좋아할 것이라고 드디어 속내를 말해 버린다(U 16.1800-02). 블룸이 폴리의 애인을 직접 골라주는 것이라면 블룸이 폴리의 밀회를 계획한 것과 다르지 않은 동일성의 반복이지만 스티븐의 경우는 보일런과 다르다. 블룸은 폴리가 보일런이 아닌 스티븐을 만나는 것에 반감이 없고 그것은 폴리가 “가정의 천사”로 역할을 사는 것이 아니라 폴리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을 긍정하는 차이의 반복이다. 폴리가 성적 주체로 사는 것은 좁은 의미로써 성적 욕망이 아니라 생성으로서 결핍이 아닌 욕망적 생산의 삶을 사는 것이다. 블룸은 스티븐이 폴리에게 이탈리아어(Italian)를 폴리는 스티븐에게 성악을 가르쳐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폴리와 스티븐이 만나는 것은 단순히 성적 욕망이 아닌 삶을 욕망하는 것에 대한 블룸의 새로운 인식이다. 블룸이 13장에서 거티(Gerty MacDowell)를 통해 수음한 후 그녀에게 “감사한다”(U 13.940)라고 말하는 것도 삶에는 도덕에 우선하는 ‘무엇’인가 있기 때문이다. 블룸과 거티 사이에는 재현될 수 없지만 “일종의 언어가 있었다”(U 13.944). 블룸이 통념에 어긋난 파넬(Charles Stewart Parnell)과 ‘그녀’와의 사이에서 사랑을 읽

어 내는 것도 그것은 “둘만의 문제”(U 16.1532)이기 때문이다. 블룸은 물리의 외도에서 도덕이 아니라 사랑의 기호와 마주친다.

17장의 교리문답에서 블룸은 물리의 외도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를 찾는다. 물리와 헤어질 생각이 없는 블룸은 물리의 외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리가 취미를 갖거나 교양강좌를 듣는 것을 생각해 본다. 그것으로 안된다면 “위생 검열이 잘된 남성 매춘굴에서 은밀한 만족을 취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U 17.668-69). 블룸의 사유는 당대는 물론이고 그로부터 1세기가 지난 현대의 남성도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정서이다.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결혼이”(U 15.3277)듯이 비난의 대상은 제도이지 남성이 아니다. 물리도 욕망의 주체가 되려면 빅토리아(Victorian) 시대(1837-1901)의 결혼제도에서 발생하는 여성에게 부당하게 작용하는 관습을 넘어서야 한다. 유텔(Janine Utell)은 “조이스는 아내의 역할을 위해서 여성들이 자신을 지워야 하는 결혼제도의 파괴성을 보여준다”(강미선 133 재인용)라고 말한다. 결혼 관계에서 아내가 남편의 소유물이 되는 법과 통념은 블룸에게는 더는 유효하지 않다. 블룸은 “아무리 선의적으로 서로의 우월성을 자랑한다 해도 평등이 우선시되어야 하고 폭력과 편협성에 찬성하지 않는다”(U 16.1098-1100). 블룸은 집을 떠나는 스티븐을 배웅할 때 불빛에 비치는 물리를 본다. 물리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블룸은 물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직간접적인 언어적 암시와 단언으로 억제된 애정과 찬탄으로 묘사로 말더듬이로 암시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다”(U 17.1179-81).

블룸은 보일런을 부러워하고 질투하지만 그런 생각을 단념하고 태연한 평정심에 이른다(U 17.2195). 블룸은 “정조를 지나치게 찬양하는 것은 어리석고 복수 같은 것은 허망하며 별들은 이런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U 17.2224-26)라는 답도 얻는다. 블룸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답에서 해를 찾는 것은 언어로 재현할 수 없는 불가능한 실재가 표면으로 부상하는 효과이다. 조이스는 예측된 미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재성의 장에서 도래할 미래인 ‘무엇’을 표현한다. 영원히

도래할 미래로써 새로운 지평은 조이스가 말한 표면의 아래에 흐르는 기저의 힘이 표면으로 부상할 때 열린다. 블룸은 가시성의 불가피한 양상의 경계를 넘고 ‘무엇’을 현실화하며 조이스의 혼우주와 들뢰즈의 내재성의 삶을 구축한다.

루디의 죽음에 대한 블룸의 인식 또한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자. 15장에서 현실로 돌아온 블룸이 바다에 쓰러진 스티븐을 돌보고 있을 때 루디의 환영과 문득 마주친다. 지금까지는 블룸이 루디를 연상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루디가 환영으로 블룸에게 불쑥 나타난다. 블룸이 쓰러져 있는 스티븐을 보고 루디를 연상하는 것이 아니라 루디가 어두운 벽면에 환영으로 비친다. 블룸은 스티븐을 루디의 대체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블룸에게 장자가 없는(U 14.271-72) 것만으로 블룸이 루디의 대체자를 원한다는 해석은 비평가의 통념이 아닐까. 블룸은 아버지의 법을 물려줄 아들을 낳으려 하지 않고, 아버지의 법을 따르지도 않았다. 블룸이 죽은 루디를 잊지 못하는 것은 장자가 없다는 회한이 아니라 아들의 죽음에 아버지로서 느끼는 책임감이나 함께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애석한 마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블룸과 스티븐의 관계를 부권회복으로 해석하는 것은 욕망적 생산의 흐름에 적합한 독법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루디의 죽음은 부자 관계의 회복이라는 주제와 무관하게 블룸이 풀어야 할 문제이다. 블룸은 루디의 환영에서 무엇을 보는가? 환영으로 돌아온 루디는 스티븐의 어머니나 디그넴(Patrick Dignam)과 달리 온전하고도 말쑥한 모습이다. 루디는 블룸을 원망하지도 않으며 부패 중인 흥측한 몰골도 아니다. 읽으면서 미소짓고 키스하는 루디는 블룸을 쳐다보지 않은 채 자족하고 있는 모습이다. 블룸은 루디의 주머니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는 새끼 양을 본다(U 15.4967). 새끼 양은 블룸에게 루디가 속죄양이 되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기호가 된다. 루디의 미소와 새끼 양은 블룸에게 “기존의 코드를 부수는 것, 다시 말하면 . . . 굳어진 도덕률과 불필요한 가책, 우울, 그리고 비극으로부터 해방되는 웃음”(신지영 129-30)을 선물한다. 루디의 환영은 이제 죽은 아들이 블룸에게 주는 선물이 된다.

햄릿(Hamlet)처럼 아버지의 환영을 두려워하는 아들이 아니라 거꾸로 루디는 “아버지를 돕기 위해 환영으로 나타난다”(Kiberd 233). 블룸은 환영으로 나타난 아들로 인해 “이 세계를 정면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자유로워지면서 자식의 죽음이라는 끔찍한 선물을 받아들”(강미선 74 재인용)일 수 있게 된다. 루디의 미소를 본 블룸은 죽은 아들에 대한 애도를 끝낸다.

블룸은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이란 들뢰즈의 용어로 말하면 “긴-기억”(long term memory)(Deleuze & Guattari, *TP* 16)에서 자유로워지자 목적이 없는 조건 없는 사랑을 스티븐에게 베푼다. 스티븐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찾지 못했던 “사랑, 그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말”(U 9.429-30)인 그 사랑을 블룸은 스티븐에게 수행적으로 보여준다. 스티븐이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소리를 듣고 블룸은 스티븐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생각에 매달린다. 이 밤에 낯선 사람을 집으로 데려가는 것을 물리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블룸은 스티븐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푼다. 시급한 것은 스티븐이 지금 뭔가를 먹어야 하기(U 16.1569-70) 때문이다.

V. 나가며

지금까지 블룸이 자신의 가정 문제에 대한 해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살펴보았다. 전통적 가부장적 규범에 순응하는 블룸이라면 전후 관계를 떠나 아내의 외도를 용서하지 않고 가부장적 전통을 잇기 위해서 아들을 낳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반유대주의를 당연히 여기는 더블린에서 이방인으로 사는 블룸은 아내의 외도와 장자의 문제에 대해 통념에 어긋나는 해결점을 찾는다. 그것은 반성을 통한 변증법적 해결책도 아니고 초월자에 기대어 용서와 해탈로 승화시키는 것도 아니다. 대신 블룸은 환상 속에서 현상들 너머에 있는 삶의 본질과 마주한다. 블룸의 신체로 감각되는 그 체험은 블룸의 신체에 흔적을 남기며

블룸에게 현실의 문제를 직시할 수 있는 변용의 에너지로 보유된다.

조이스나 들뢰즈에게 ‘흐름’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는 세계 아래에서 흐르는 기저의 힘을 현실화하는 욕망적 생산이다. 그 숨겨진 힘은 블룸에게 아내의 외도와 아들의 죽음에서 사랑의 기호와 마주할 수 있게 한다. 블룸이 아내의 외도와 아들의 죽음에서 사랑의 기호와 우연히 마주치자 블룸에게 아내의 외도는 더는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한다. 장자의 문제에 대한 해결도 아버지의 법을 전수할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이웃인 스티븐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표현된다. 블룸이 가시적 현실에서는 아내의 외도와 아들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온종일 그 문제에 시달렸다면 기저의 힘이 표면으로 방출될 때 ‘이상한 주체’가 된 블룸은 욕망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현실화한다. 블룸은 아내의 외도와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원한을 갖는 대신 망각하며 그 빈칸을 사랑으로 채운다. 조이스가 말하는 “완전한 자유”(Birmingham 225)와 들뢰즈가 말하는 ‘내재성의 평면’에 흐르는 조건 없는 사랑은 어떤 조롱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사랑을 사랑하기를 사랑하는”(U 12.1493) 것을 멈추지 않는다.

(충남대)

인용문헌

- 강미선. 「『율리시스』와 들뢰즈적 사건」. 박사논문, 충남대학교, 2019.
- 김경숙. 「『키르케』: 다시 쓰는 『율리시스』, 미리 쓰는 『경야』」. 『제임스 조이스 저널』, 22권, 1호, 2016, pp. 9-31.
- 로즈마리 잭슨. 『환상: 전복의 문학』. 서강 여성문학연구회 역, 문학동네, 2002.
- 모리스 마테를링크. 『지혜와 운명』. 성귀수 역, arte, 2017.
- 서동욱. 「들뢰즈의 문학론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현상학과 현대철학』, 38, 2008, pp. 101-24.
- 신지영. 『들뢰즈로 말할 수 있는 7가지 문제들』. 그린비, 2008.
- 오길영. 『세계문학공간의 조이스와 한국문학』. 서울대학교출판부, 2013.
- 질 들뢰즈. 『의미의 논리』. 이정우 역, 도서출판 한길, 1999.
- 제임스 조이스. 『율리시스』. 김종건 역, 1권, 어문학사, 2013.
-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안티 오이디푸스』. 김재인 역, 민음사, 2014.
- Birmingham, Kevin. *The Most Dangerous Book*. Head of Zeus, 2015.
- Bogue, Ronald. *Deleuze and Gattari*. Routledge, 1989.
- Boheemen, Christine Van. “‘The Language of Flow’: Joyce’s Dispossession of the Feminine ‘Ulysses.’” *European Joyce Studies*, vol. 1, 1989, pp. 62-77, www.jstor.org/stable/44871175. Accessed 24 Dec. 2021.
- Budgen, Frank. *James Joyce and the Making of ‘Ulysses.’* OUP, 1972.
- Colebrook, Claire. *Gilles Deleuze*. E-book, Taylor & Francis, 2001.
- Deleuze, Gilles. *The Logic of Sense*, edited by Constantin V. Boundas. Translated by Mark Lester and Charles Stivale, Columbia UP, 1990.
- . Preface to the French Edition. *Essays Critical and Clinical*. Translated by Daniel W. Smith, Michael A. Greco, U of Minnesota P, 1997, pp. lv-lvi.
- . “Re-presentation of Masoch.” *Essays Critical and Clinical*. Translated by

- Daniel W. Smith, Michael A. Greco, U of Minnesota P, 1997, pp. 53-55.
- Deleuze, Gilles, and Félix Guattari. *Anti-Oedip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Translated by Robert Hurley, et al., U of Minnesota P, 1983.
- . *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Translated by Brian Massumi, U of Minnesota P, 1987.
- . *What Is Philosophy?*. Translated by Hugh Tomlinson and Graham Burchell, Columbia UP, 1994.
- Gifford, Don. *Ulysses Annotated*. U of California P, 1988.
- Gilbert, Stuart. *James Joyce's Ulysses*. Vintage Books, 1955.
- Jackson, Rosemary. *Fantasy: The Literature and Subversion*. E-book, Taylor & Francis, 2009.
- Joyce, James. *Ulysses*, edited by Hans Walter Gabler et al., Vintage, 1986.
- Kiberd, Declan. *Ulysses and Us: The Art of Everyday Life in Joyce's Masterpiece*. W.W. Norton & Company, 2009.
- Maeterlinck, Maurice. *Wisdom and Destiny*. Translated by Alfred Sutro, E-book, The Project Gutenberg, 2009, www.gutenberg.org/ebooks/4349.
- Mahaffey, Vicky. *States of Desire: Wilde, Yeats, Joyce and the Irish*. Oxford UP, 1998.
- Power, Arthur. *Conversations with James Joyce*. Millington, 1974.
- Sunggyung, Jo. "Ulysses-Machine: Posthuman Joyce and the Ethics of Production." *James Joyce Journal*, vol. 27, no. 1, 2021, pp. 125-46.
- Utell, Janine. *James Joyce and the Revolt of Love: Marriage, Adultery, Desire*. Palgrave Macmillan, 2010.

AbstractReading the Three Chapters of *Ulysses* as a Flux

Misun Kang

This article looks at how the main character, Bloom, deals with the problems of his wife's extramarital affair and his son's death. My objective is to demonstrate in Bloom the flow of the potential and its actualization by focusing on chapters 15, 16, and 17. When completing the process of actualizing the potential, Bloom emerges as a new person with a vision of his problems. Joyce's concern about the potential rather than the actual corresponds to Deleuze's interest in actualizing the real.

This article begins with Joyce's perspective on life as a flux in modern art from his conversation with Arthur Power, followed by Deleuze's notion of flow in “desiring-production.” Then, in chapter 15, it is claimed that their notion of flux fits in with Bloom's hallucinations as the potential, in which Bloom undergoes multiple transformations with no fixed identities. When Bloom is back on clock time, it is revealed that the difficulties with his allegedly cuckolding wife and his deceased son no longer worry him in chapters 16 and 17. His encounter with hidden energy flowing underneath the firm surface leads Bloom to subsume an unknown reality wherein Bloom's perspective on life is no longer bound to the known but enlarged to the unknown.

■ **Key words** : flow, the potential, actualization, desiring production, hallucinations, the known, the unknown

(흐름, 잠재적인 것, 현실화, 욕망적 생산, 환상, 기지의 세계, 미

지의 세계)

논문접수: 2021년 11월 18일

논문심사: 2021년 11월 21일

게재확정: 2021년 12월 17일